



보도자료

2014. 4. 2.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파생상품분석팀		
책임자	최계명 팀장 (3145-8350)	담당자	김혜선 선임조사역 (3145-8335)
배포일	2014. 4.1.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제 목 : 2013년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1. 파생상품 거래규모

□ (전체) 2013년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총 거래규모(명목금액 기준)는 5경 7,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5.7%(3,443조원) 감소

- KOSPI200 옵션·선물 등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침체가 전체 파생상품의 거래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규모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전 체	82,951	60,564	57,121	△3,443(△5.7)
장내	70,011	48,420	45,101	△3,319(△6.9)
장외	12,940	12,144	12,020	△124(△1.0)

주) 1.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의미
 2. 집계대상 : 은행, 외은지점,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선물사, 카드회사

□ (상품별) 주식 및 통화관련 거래는 감소한 반면, 이자율 및 신용관련 거래는 증가

- 주식관련 거래(3경 7,456조원)는 전년 대비 8.6% 감소하였는데, 지수변동성 축소 등에 따른 증권사의 선물·옵션 자기매매 거래가 감소한데 기인
- 통화관련 거래(9,957조원)도 낮은 수준의 환율변동성 등으로 은행의 통화선도 거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3.4% 감소

- 반면, 이자율관련 거래(9,634조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는데,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헤지 수요 증가로 은행 및 증권사의 이자율스왑 거래가 증가한데 기인
- 한편, 신용관련 거래(41조원)도 증권사의 신용부도스왑(CDS) 거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6.1% 증가

상품별·권역별 파생상품 거래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3년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기타
전 체	60,564	57,121	12,424	42,950	101	692	954
주식	40,988	37,456	83	36,879	25	153	316
선물·옵션	40,825	37,334	58	36,786	21	153	316
이자율	9,203	9,634	3,605	5,352	32	152	493
이자율스왑	2,320	2,588	2,199	385	1	2	1
통화	10,307	9,957	8,721	668	43	381	144
통화선도	9,107	8,695	8,089	252	26	322	6
신용	28	41	3	37	1	0	0
CDS	21	33	3	30	0	0	0
기타	38	33	12	14	0	6	1

주) 1. 신탁은 자산운용 펀드계정, 은행 및 증권사의 신탁계정으로 구성
 2. 권역별 기타는 증권사, 신용카드사, 선물회사로 구성
 3. 상품별 기타는 귀금속 및 기타 금속, 농축수산물 등 포함

- (권역별 비중) 파생상품 거래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 관련 거래가 많은 증권사의 비중(75.2%)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은행(21.7%), 선물회사 등(1.7%), 신탁(1.2%), 보험(0.2%)의 순
- (거래상대방 비중)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은 외국 금융회사(35.6%) 및 외은지점(31.0%)이 높은 비중을 차지

2. 파생상품 거래잔액

□ (전체) 2013년말 기준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총 거래잔액은 6,90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6조원(0.7%) 증가

- 장내 및 장외거래잔액이 모두 증가(7조원 및 39조원)하였으며, 특히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거래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거래잔액이 증가
- 한편, 헤지운용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증가가 전체 장외거래 잔액의 증가를 주도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잔액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증감(률)
전 체	6,981	6,858	6,904	46(0.7)
장내	70	76	83	7(9.5)
장외	6,911	6,782	6,821	39(0.6)

- (권역별 비중)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이자율 및 통화관련 거래를 주로 하는 은행이 거래잔액의 대부분(88.0%)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증권*(10.6%), 보험(0.6%) 및 신탁(0.6%) 등의 순
- * 장내파생상품 단기매매를 주로 하므로 거래규모는 크나 잔액은 상대적으로 작음

3. 주요 특징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장외거래는 안정적으로 유지
 - 장기적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파생상품 활용도 증가
- 증권사의 적극적인 헤지운용 등으로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차 확대
 - * (잔액기준) 5.2%(11년) → 7.4%(12년) → 10.0%(13년)
 - 또한, ELS·DLS 시장의 성장으로 ELS·DLS 기초자산 유형 및 관련 헤지 방식이 파생상품시장 거래동향에 미치는 영향* 증대
 - * 통상 백투백(Back-to-Back)헤지를 하는 지수형 ELS의 증가로 주식스왑 거래가 증가한 반면, 자체헤지를 주로 하는 종목형 ELS의 감소로 장외 주식옵션 거래가 감소

※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 「금융 투자업무」 > 「파생상품관련자료」에 게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